

광주 일자리 창출·기술 선도기업 집중 지원

유망 중소기업 5개사 추가 선정 연구개발·정책자금·판로개척 등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지원

광주시가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경제를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대구에서 개최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에서 광주 혁신 선도기업 5개사가 선정됐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정부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정과제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지난 3월 1차 37개사 선정에 이어 2차로 5개사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2차로 선정된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우성정공(사출금형) ▲㈜뉴서광(지능형가전·전자부품) ▲㈜동진기업(광융합·이차전지 조립설비) ▲㈜두등기업(금형·자동차부품) ▲㈜은혜기업(금형·자동차부품) 등 5개 기업이다.

특히 추가 선정된 기업 모두 광주시 지정 명품강소기업으로, 지역스타기업과 글로벌강소기업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는 성장을 이뤄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17일 대구에서 개최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에 참석한 광주지역혁신 선도기업 대표 등이 선정서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명품강소기업 → 스타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광주시 기업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강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예비(Pre)-명품강소기업 321개사를 자체적으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 중앙부처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지역스타기업 76개사, 수출선도기업인 글로벌강소기업 38개사,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5개사,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월드클래스 6개사, 지역대표중견기업 2개사 등 총 448개 기

역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정환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앞으로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기업과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의 주체로서 지역대표 기업에서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4388억원 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전남도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4388억원으로 확정해 지급을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 대상은 19만4000명의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명 974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1만4000명 3414억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접수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운영하면서 직불금 감액우려 필지를 사전 안내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마을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에 대해 전남도와 농관원 간 합동점검을 통해 실경차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해당 시군(읍면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인 유기농 실천 다짐

전남친환경농업인 한마음대회

전남도내 친환경 농업인들이 17일 전남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실천을 다짐하는 '전남친환경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유장수 전남친환경농업협회장, 강용한 국민환경농업협회장, 박서홍 농협전남지역 본부장, 친환경농업인, 유기농명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자재업체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대회는 도립국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기념사와 퍼포먼스, 전남친환경농업협회 발대식과 강용 회장의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공자 시상식에서 친환경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김민용 영광군 친환경농업협회 사무국장 등 17명에게 전남도지사 표창장과 감사패 등을 전달했다. 또 각 시군에서 생산한 유기농쌀, 단감 등 친환경 농산물과 즉석밥, 누룽지 등 가공품,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유기농 버섯과 와인 등을 전시해 친환경농업인 상호 기술을 공유하고 친환경농업 사례 정보를 교류했다.

지난해 말 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만 5299ha로 전국 인증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5883ha로 전국 인증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 순천만정원박람회 32억 추가 지원

전남도, 마케팅·야간 경관 조명사업 등 콘텐츠 강화

전남도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케팅과 야간경관 조명사업 등 콘텐츠 강화 사업비 32억원을 2023년도 예산안에 추가 편성했다.

전남도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해 편성한 2023년 예산은 172억원으로, 그동안 지원한 143억원을 포함해 모두 315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3년 박람회 당시 지원 예산액(90억원)보다 225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추가 편성한 예산은 예능프로그램 등 전국적인 박람회 홍보 마케팅 10억원, 순천 동천 저류지 정원 야간경관 조명사업 20억원, 정원역 숲 조성 2억원 등이다.

동천 저류지와 인접한 위치에 국내 최초 플로팅

공법을 이용한 '물 위의 정원'을 조성해 개막식 무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통해 독일 라인강 옆 '본저류지'에 버금가는 '순천 동천 저류지 정원'을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수도권에서 KTX를 이용해 방문하는 관람객 교통편의와 특색있는 체험을 위해 순천역 인근 선착장에서 체험선을 타고 15분 만에 국가정원 호수로 들어가는 동천 뱃길도 복원하고 있다.

또 특별한 추억을 원하는 관람객을 위해 정원에서 하룻밤을 머무르는 글램핑 형태의 캐빈과 로컬 푸드를 활용한 가드너의 밥상 등 여러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동천을 중심으로 도심 전체가 정원이 된다"며 "세계적 정원축제로 거듭나도록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한국에너지대상' 대통령상

도정 최초...재생에너지 조례 제정·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호평

전남도가 2022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최고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대상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국 기관·단체, 공기업·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 수여되는 에너지 분야 최대 규모 정부포상이다.

전남도는 에너지 분야에서 도정 최초로 대통령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에너지전담 국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전국 최고의 태양광·풍력 잠재량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에너지 전담 국단위 조직을 신설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량 전국 1위, 발전량 전국 2위를 달성(2021년 기준)했다. 또 5GW 주민 상생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 등 재생에너지 산업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와 함께 국내 최초 MW급 영농형태양광 조성,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년 연속 국비 확보 1위 달성 등 경관 훼손과 농지 잠식을 최소화하며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환경친화적·주민상생형 발전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국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개교한 세계 유일 에너지 분야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기후·환경 등 에너지 분야 중점 연구를 통해 국가 및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RE100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전남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